

여행업: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

■ 여행업종 현황 점검, 매수 관점 접근이 필요한 시기

시장은 5월(5/1~5/6)과 6월(6/4~8) 황금연휴 효과로 2분기 여행 업황 호조를 기대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수요 위축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부진했다. 여행업종의 2분기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어 이미 주가에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판단한다. 월초 발표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7~9월 예약률은 역성장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성수기 효과, 여행 심리 회복에 따른 이연 수요 발생, 원달러 환율 하락 안정화 등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돼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여행업종에 대한 매수 관점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 하나투어: 기저효과와 체질 개선으로 별도기준 영업이익 11.5% 증가 예상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45억원(+6.7% YoY), 영업이익은 61억원(-3.6% YoY)로 예상된다.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698억원, 영업이익은 11.5% 늘어난 47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나투어의 패키지 송출객수는 세월호 참사, 동남아 및 일본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했으나 5~6월 황금연휴 기간 가격단가 상승과 수익성 강화 전략으로 별도기준 실적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투어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7,500원(12MF EPS에 목표PER 20배 적용)을 유지한다.

■ 모두투어: 별도기준 영업이익 전년동기대비 75% 성장할 전망

모두투어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한 346억원, 영업이익은 75.1% 늘어난 32억원으로 예상된다. 모두투어는 중국AI 발생, 전세기 취소 등에 따른 전년동기 기저가 낮아 경쟁사대비 별도기준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조적으로 ASP가 높고 매출전환율이 큰 유럽 등 장거리 노선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이익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반기에 온라인 부킹 엔진 업그레이드, 모바일앱 출시, 여행박람회 개최, 스포츠 마케팅, 멤버십 마일리지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칠 예정으로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 3분기 별도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83억원(+11.6% YoY), 99억원(+11.6% YoY)로 예상된다. 모두투어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4,000원(12MF EPS에 목표PER 18배 적용)을 유지한다.

■ 인터파크INT: 투어 실적은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터파크INT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 특성상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2분기 별도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51억원(-6.4% YoY), 30억원(-23.9% YoY)을 기록할 것이다. 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해 6,10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매출 비중 50%를 상회하는 도서부문 거래액이 전년동기대비 8.3% 감소했고 ENT 부문은 전년동기 순천만정원 박람회 판매액(약 230억원) 반영으로 전년동기대비 19.6% 줄었음에도 핵심성장원인 투어 부문 거래액이 30.7% 증가해 고성장세를 지속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터파크INT는 투어부문 성수기 효과, 패키지 매출 확대, 상반기대비 대작이 많은 공연 라인업 등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폭은 보다 확대될 것이다. 인터파크INT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0,000원(12MF EPS에 목표PER 40배 적용)을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7월 2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